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1호 【루게 제23428호】 주체100 (2011)년 4월 21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고조의 선봉에서 기운차게 내달리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고조의 선봉에서 기운차게 내달리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태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지배인 리희현동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철훈동지를 비롯한 기업소의 책임일군들, 금속공업성 부상 명송철동지, 함경북도당위원회 비서들인 리희용동지, 엄학진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도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4개월만에 또다시 맞이한 북방의 대야금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는 이날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우리 나라 중공업의 기둥, 우리 경제의 생명선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당당히 맡아 수행해나가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날에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김철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온갖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박차고 무섭게 용을 쓰며 일어나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와 기질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간압연직장을



김철에서 지난해에는 우리 식 용광로에 의한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더니 올해에는 남의 나라에 의존하던 중유강편생산체계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의 연료에 의거하는 새로운 강편생산체계를 확립하였다고 하시면서 경제강국건설의 전초병, 개척자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철강재 생산을 부단히 늘이면서도 금속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련관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 기술자들에게 감사사를 주시였다.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원료를 주체화,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김철이 불과한해동안에 적자만 기록하던 기업소로부터 흑자를 내는 기업소로 전변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생산이자 과학기술이고 과학기술이자 강성대국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기업소의 일생산 및 재정총화정형을 료해하시고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차례지게 하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여 로동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행정경제사업의 정치화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와 기술개선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올해 정초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돌격에서 김철이 맨 앞장에 서겠다고 굳게 결의하신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대동적영웅주의와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린 결과 지난해보다 높아진 매월 철생산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기업소의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

고 즐기던 투쟁을 벌려 주체철용광로와 원호식련속조리기, 3호가열로를 비롯한 주요생산공정들을 CNC화함으로써 원단위소비기준을 훨씬 낮추면서도 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산하고 또 생산하며 증산하고 또 증산하여 더 많은 철강재로 나라의 중공업과 경공업을 믿음직하게 떠받들고있을뿐아니라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진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기업소로동자들의 로력투쟁을 따듯이 고무격려 해주시였다.

열간압연직장에 새로 꾸려진 CNC화된 고온공기연소가열로를 보시고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나라의 맡아들답게 금속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철강재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는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을 일떠세운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고온공기연소가열로가 일떠선 결과 중유를 전혀 쓰지 않고 자체의 용광로에서 나오는 가스를 연료로 마음먹은 대로 강편을 생산해낼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공정에서 놀라운 기술적진보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 여성과지원대의 발기자이며 대장인 한옥련동무를 만나시고 김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떠오르고 전례없는 성과가 이룩되던 나날에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사상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평범하던 김철의 여성들이 온 나라가 사랑하는 영웅적위훈의 주인공들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아글라글 노력하고있는 자랑스러운 여성지원자들의 공로를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대고조의 선봉에서 기운차게 내달리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력으로 만단을 헤쳐감으로써 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구호인 자력갱생이야말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는 열쇠이며 우리 민족을 영원히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필승의 보검이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금속공업을 발전시켜야 기계제작공업과 기본건설의 장성을 보장할수 있고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하시면서 금속공업부문이 대고조의 진군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밑뿌리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주체철생산의 규모를 확대하고 CNC화목표를 앞당겨 집행하며 열간압연뿐아니라 냉간압연공정도 우리식으로 가동시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철강재를 품종별, 규격별로 원만히 보내주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나 할것없이 생산장성의 근본담보는 주체화를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여기고 원료, 자재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노동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원료와 연료의 국산화비중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원료, 자재를 극력 절약하고 같은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편관기업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동력과 원료, 연료를 담당한 발전소와 광산, 탄광들에서 전력과 철정광, 석탄을 제때에 더 많이 생산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자것이 우리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김책의 철강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즐기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오늘의 생산돌격전에서 승리의 열쇠는 지도일군들이 어떻게 근로자들을 생산의 자각적인 열성자, 증산의 주동적인 발기자로 되게 하는가 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의 기수들인 일군들은 인민군대의 지휘성원들처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충

발동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언제나 명심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헌신분투하는 그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전진적국면이 열리고있는 지금 김책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다지고 다져온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대고조의 선봉에서 계속 질풍같이 내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격동의 시대를 맞이한 전체 인민은 지금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일찌기 없었던 세기적기적을 창조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거세찬 비약의 폭풍은 찬란한 미래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조선의 혼연일체가 얼마나 위력하며

대고조의 불길속에서 다지고다져온 자립경제의 잠재력이 얼마나 무서운 힘으로 분출하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고 자립적민족경제축성과 사회주의건설에 거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충실성의 전통을 창조한 김책의 영웅적로동계급이 당이 준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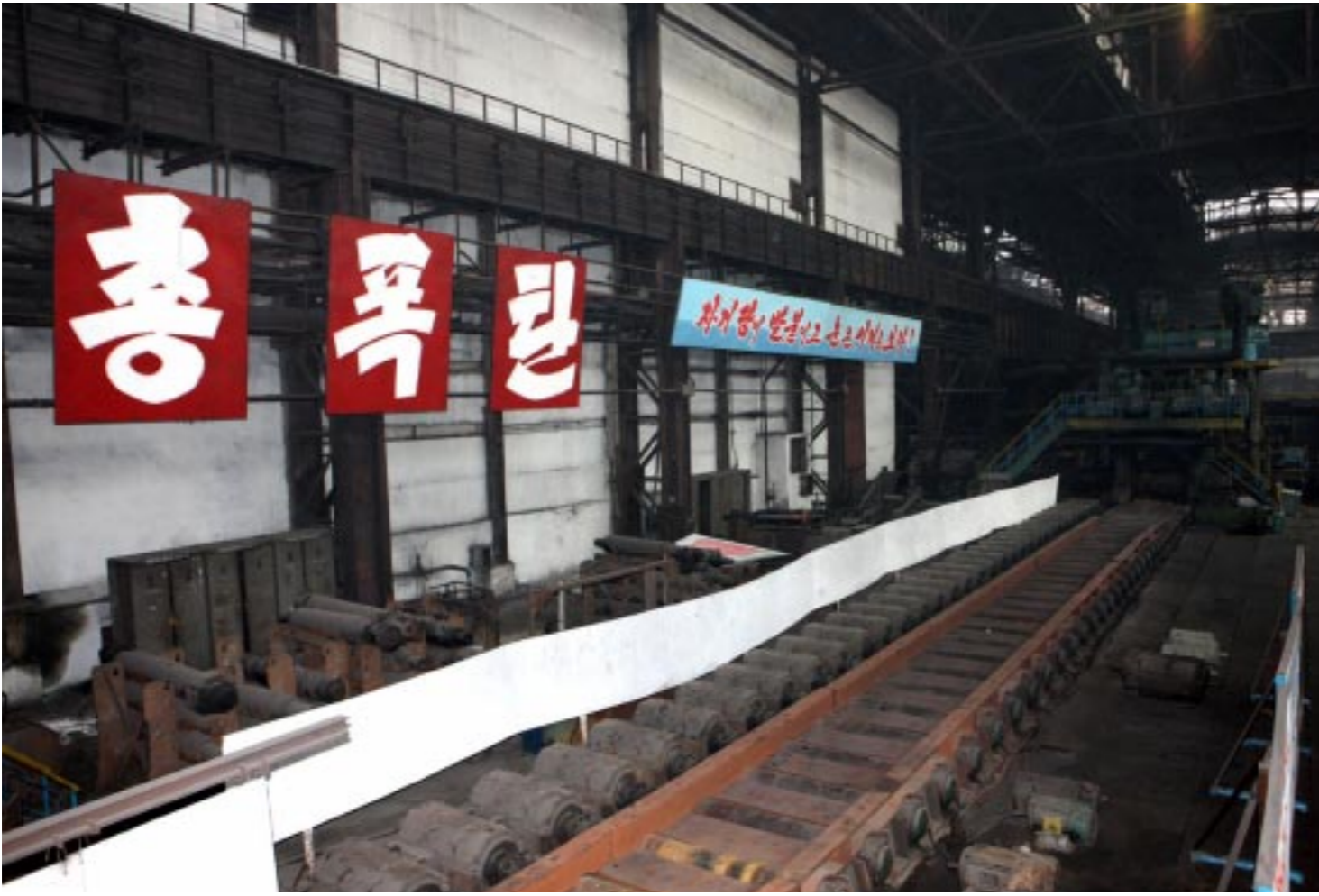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강성대국건설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또다시 찾아오시여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현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대고조의 선봉에서 기운차게 내달리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함경북도에서 새로 건설한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태중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도와 공장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올해에 경공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들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수성천기슭에 새로 건설된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은 도에서 생산되는 농토산물과 산과일, 산나물을 비롯한 지방원료를 가지고 물엿, 사탕, 파자, 콩우유, 빵, 술, 장절임, 음료 등 각종 식료가공품들을 생산하는 종합적인 식료가공기지이다.

함경북도에서는 삼일포특산물공장과 같은 실리있는 공장들을 도들에 건설할데 대하여 주신 경여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을 즐기치게 벌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CNC화된 현대적인 식료공장을 도자재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일떠세우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높은 뜻을 하루빨리 실현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이악하게 투쟁하여 공장앞에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사랑작업반, 파자작업반, 빵작업반, 술작업반 등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은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을뿐아니라 최신시설비들로 장비된 현대적인 식료가공기지라고 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우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식료가공설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아담하고 정결한 작업장들에서 쉬임없이 쏟아지는 갖가지 식료가공품들을 보시고 질 좋은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해 기뻐하시면서 도내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는 공장로동계급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은 자기 지방에서 나오는 원료에 의거한 생산체계가 확립되고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만든 현대적인 설비들로 장비되었으며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된 실리있는 현대적인 식료품생산기지라고 말씀하시였다.

삼일포특산물공장의 모범을 따라 오늘 모든 도들에 현대적인 종합식료공장이 일떠서 크게 은을 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일꾼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이악하게 투쟁하면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한데 어울려 부르는 랑만에 넘친 노래를 들어주시고 우리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로동은 곧 노래이고 기쁨으로 되있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 자라난 우리 로동자들의 품만한 정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이 제 12차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로동자부류)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심신과 락판에 넘쳐 노래속에 흥겨운 로동생활의 나날을 위훈으로 빛내여가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로동계급들처럼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신념의 강자들은 이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내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뜨거운 애민정신을 계속 높이 발휘하여 생산을 더욱 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비롯한 식료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녀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시킬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인민들에게 질 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식료품의 가지수를 더욱 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자원과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경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경공업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생산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고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마련해주자는것이 당의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식료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원료와 자재의 제질과 순도, 규격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정확히 보장하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키는 엄격한 규정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공장을 만부하로 돌리자면 기술관리, 설비관리에 큰 힘을 넣으며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넉넉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는것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공장의 일꾼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조직화하는데서 경제적라산을 바로하고 경제적으로성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온 나라에 사회주의만세소리,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질수 있으며 강성국가의 대문이 열려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질 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상점대들을 풍성하게 함으로써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종업원들이 강성대국 건설대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거세찬 시대의 숨결에 발을 맞추어 생산에서 보다 큰 비약을 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애민정성의 길을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정에 북받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어버이장군님의 대해같은 사랑이 인민들에게 더 많이, 더 빨리 가닿도록 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